정부부처 불자회 연합회 만든다

농림부·법무부등 합동강연회 계기 추진

초파일 제등행렬 함께 참가…연내 발족

정부 부처 불자회들이 합동 강연회를 개최하고 오는 7일 연등축제 때 함께 제등행진에 나서는 등 불자연합회 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24일 농림부 불자회가 마련한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스님 초청 강연회 및 저자 사인회에는 농림부 불자회원 뿐만 아니라 법무부·공정거래위·보건복지부 불자회원 150여명이 동참했다.

◇농림부가 주최한 현각스님 초청강연회에는 공정거래위·법무부·보건복지부 소속 불자들도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이 강연회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불자회, 특히 과천정부청사에 둥지를 틀고 있는 공정거래위, 법무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네 곳의 불자회는 앞으로 연합법회, 연합수련회 개최 등 공동으로 행사를 마련하는 등 올해 안에 연합회가 결성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3월 농림부 불자회 창립 때에도 공정거래위, 법무부 불자회 임원진 중 일부는 같이 참석해 회칙 제정 및 연합 활동 방안을 제안하는 등 불자회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불자회는 상호교류를 통해 개개 불자회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어려운 일들은 서로 도와가며 회원 확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를 결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서로간의 친목. 비슷한 직업인 만큼 공감대를 형성해 친목을 다진 후에 정기적인 법회 및 성지순례 등을 통해 장단기 사업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 당장 눈 앞에 닥친 7일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렬 때에는 회원들 각자가 소속 사찰에서 행사에 참석했던 예년과 달리 정부 부처 불자회 이름 아래 합동으로 참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 부처 불자회들은 수련회 등 연합 행사를 통해 올해 안에 연합회 결성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불자회가 창립되어 있는 곳은 감사원, 국세청, 청와대, 국회, 국회사무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이다. 이 가운데 감사원과 국세청, 청와대와 국회 등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부처 불자회들은 종종 연합법회를 봉행하는 등 우의를 다지고 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직장 직능 불자회의 연합회 결성과 관련해 "유사분야 불자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10월 전국 직장 직능 연합조직체 결성대회를 준비중"이라며 "정부 부처 불자회 외에도 구청 불자회들이 모여 공무원 불자연합회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등 직장 직능단체의 연합회 결성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이버 불동 야단법석 '열기'

천불동 조계사서 전국모임…수계식도

하불동 지역별로 산사찾아 법회·봉사

사이버 불교동호회 회원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전국모임 법회를 열고, 수계법회를 갖는등 직접 만남의 장을 만들었다.

천리안 불교동호회는 4월22~23일 양일간 조계사에서 전국모임을 가졌다. 사이버 세상에서만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법담을 나누던 천불동 법우들은 첫만남인데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이미 통신으로 친목을 다졌기 때문이다.

이번 천리안 전국모임은 지난 회와 달리 김성철 교수, 도법스님 등의 강연을 연달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마련됐다. 22일에는 '공의 논리와 실천'을 주제로 김성철 교수의 강연을 듣고 23일에는 도법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설법전에서 정진을 한 천불동 회원들은 새벽4시에 일어나 새벽예불을 봉행하고 1시간 동안 좌선으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침공양 후에는 3시간여 동안 연등을 만들었다. 점심공양으로 조계사에서의 일정을 마친 천불동 회원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불교조각실을 견학하며 다양한 불상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이텔 불교동호회는 각 지역모임 활성화에 나섰다. 전라지역 모임인 '백제'는 4월23일 전남 대흥사에서 제3회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대흥사에서 '백제' 법회를 후원해 주기로 해 앞으로도 법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4월29~30일에는 전남 함평 관음사에서 1박2일로 백제 등만들기 노력봉사를 가졌다. 경상지역 모임인 '갓바위'는 4월30일 대구 수성구 삼보사 극락전에서 '신행생활의 궁금한 점'을 주제로 야단법석을 벌였다. 주지 자현스님 법문도 들었다. 오후에는 신행상담 및 산행으로 야단법석을 마무리했다. 충청지역모임에서는 2일 오후 7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오계의 가르침을 재 무장하고자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한국불교연구원 '대전구도회' 금강계단에서 치루어질 이날 수계법회는 법주사 사리각에 주석하는 혜정스님을 계사로 진행됐다.

경찰청 법요식 "살신성인 자세로 근무"

경찰청 경승실(실장 자우)은 부처님 오신날 기념봉축 법요식을 4월27일 경찰청 법당에서 봉행했다.

자우스님(금강사 주지)은 "우리에게 있는 부처님을 발견하고, 믿고, 수행하면 부처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경찰은 국민의 아픔을 대신하는 살신성인의 보살행을 해왔다"고 말했다.

클릭! 새 홈 페이지

■대원사 자비신행회(http://www.daewonsa.or.kr)-3월22일 개설. 전남 천봉산 대원사 소개, 자비신행회 소개, 결식아동에게 자비의 도시락 보내기, 호스피스 교육 및 봉사 등 소개.

■참선마을(http://www.chamsun.pe.kr)-3월25일 개설. 참선법, 수식과 호흡 등 소개, 수행인의 자세 불교의 세계관 체험마당

■팔달사 청년회(http://members.tripod.co.kr/palcheong)-수원 팔달사 청년회의 홈페이지. 청년회, 연혁, 조직, 임원 및 소도임, 나눔의 집 봉사활동 법회일정 등을 싣고 있다.

■청보리학림(學林)(http://cafe.daum.net/cyberhaklim)-4월6일 개설. 신행단체인 청보리회에서 운영하는 구도 전법의 광장.

■연화마을(http://cafe.daum.net/lotus)-4월7일 개설. 불자들끼리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만든 카페홈페이지.

■해심불교동아리(http://cyber.namhae.ac.kr/~seaheart)-4월7일 개설. 남해전문대 불교학생회. 96년 창립. 여시아문, 동호회 소식 등 다양한 컨텐츠

■부산삼광사학생회(http://cafe.daum.net/lts)-4월13일 개설. 부산 삼광사 학생회 회원 임태성군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천태 법우들의 모임장소로 개설됐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서울경찰청 나라위한 법회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지홍)은 3일 오전 7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1층 구내식당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어는 경승단 총재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정대스님이 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윤웅섭 청장, 총무원장 정대스님, 포교원장 정련스님, 경승실장 지홍스님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02) 739-6500

국립의료원 봉축법회

국립의료원 불자회(회장 황영희)는 3일 오후6시 국립의료원 4층 강당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의 법문은 효림스님이 맡는다. (02)2260-7144

국불회 백련사서 봉축법회

국토연구원 국불회(회장 진정수)는 2일 안양 백련사에서 초파일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봉행한 이번 법회는 봉축메시지 대독, 독경 등으로 법회를 마치고 점심공양과 함께 좌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0343) 380-0122

서울대병원 컵등 공양

서울대병원 불자회(회장 조보연)는 9일 오후2시 부처님오신날 맞이 연등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불자회에서는 간호사실에 연등 80개를 전달하고 입원환자 1500여명에게 컵등과 떡공양을 할 계획이다.

불과회 천안교도소 위문

대한불교제과인회(회장 정판수)는 1일 오후1시30분 대한불자가수회와 천안사암연합회 후원으로 천안소년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날 제과인회는 소년교도소 재소자와 함께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후 마련한 빵 공양의 시간과 함께 대한불자가수회 소속 가수 12명이 꾸미는 위문공연도 마련했다. (0417) 574-6983

금융단불자회 연합봉축

전국금융단불자회는 4월22일 수협 잠실점에서 모여 제23회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상업은행 불자회등 10여개 불자회가 모인 이날 연합법회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를 겸해 치뤄졌다.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박 성 규
〈L.M.B. Singers 단장〉

"佛音으로 여는 극락세상"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불자로서, 음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20년 전, 갑작스런 아버지의 출가는 내 나이 14세 때의 일이다. 불자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몸은 속세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항시 진리에 대한 갈구가 있으셨던 아버지. 평생을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오신 인생에 대한 회의로 40세에 늦은 출가를 결심 구도자의 길을 가셨다.

아버지의 출가 이후 다가온 가난과 어머니의 고통 때문에 사춘기 시절 내내 나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세 번의 죽을 뻔한 사고는 나를 점점 더 황량한 사막으로 모는 듯 했다.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없었던 그 시절, 금방이라도 폭발할 사람같이 불안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선배의 권유로 합창단 오디션을 통과한 후 입단하게 되었다. 노래를 부르면 이상하게도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너무도 시원스럽게 풀어지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나의 생이 다할 때까지 음악과 함께 살겠노라고.

1987년 경제적인 이유로 갑작스럽게 지원하게된 의경생활은 가장 데모가 극심했던 시기와 딱 맞아떨어져 나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형제·자매·친구일지도 모를 사람에게 최루탄을 쏘아대고 돌을 던지고, 다리에 큰 보도 블록을 맞아 꼼짝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내 모습과 전신화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동료들. 그 아비규환 속에서 나는 그저 방황하고 있었다. 휴가를 받아 집에 있으면 아버지에게 '왜'라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며 논쟁을 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항상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말들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았다. 그와 같은 방황의 세월을 보내고 졸업 후의 진로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불교방송국 합창단 모집 광고를 보고 자연스럽게 입단했다. 그 당시 합창단 생활을 통해 바라본 불교음악의 현주소는 너무도 절박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모 사찰의 합창단을 지휘하면서 접하게 된 스님들과 법사, 그리고 교수님들의 법문이었다. 이것은 나에게 불교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었고, 또한 모 포교원 주지스님의 큰 배려는 나에게 희망과 큰 기쁨을 주었다. 그후 많은 분들의 보살핌과 격려로,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랑으로 어려우나마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5년의 유학생활을 거쳐 1년 전에 귀국해 불교방송 합창단 단원이었던 두 명과 손잡고 찬불가 보급을 목적으로 지금의 L.M.B. Singers(Love Music of Buddhism Singers의 약자, '불교음악을 사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를 창단했다.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1년 여 동안 열심히 뛰어온 결과, 현재의 나의 도반들을 만나게 되었다. 각각의 단원들은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L.M.B. Singers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단장인 나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믿음'을 갖고 따라주는 단원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할지 모르겠다. L.M.B. Singers를 체계적이며 성공적인 단체로 이끌기 위해 밤잠 설치며 노력해보지만, 나의 짧은 연륜과 미숙함으로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그 때마다 부처님께 머리 조아려 절하며 빌어본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겠노라고. 한방울의 물이 큰 바위를 뚫듯이,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부처님의 말씀을 노래를 통하여 전달하는 큰 일익을 담당하게 될 수 있으리라.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고 부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행복이다. 노력할것이다. 끝없는 정진으로 우리도 부처님같이.

전자파 수맥파 차단의 기(氣)인증! "달마도 순금카드"

달마도의 대가 오인법사 원본 작품을 99.9% 순금카드위에 직접 새겨 놓았습니다.

달마도 순금카드(지갑소지용)

앞면:오인법사 달마도
뒷면:①반야심경②사업번영부③안전운전부④시험합격부

달마도 순금판 표구액자

"부처님 오신날 봉축"
천만불자 보시용품

대한불교불동관음불교총연합회에서 인증한 기(氣)인증서

달마도 신비의 기(氣) 달마도는 TV방영에서 증명된 바 와 같이 신비스런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달마도 순금카드 일반 지갑소지용으로 얇게 편 순금카드 앞면에는 오인법사의 달마도를, 뒷면에는 반야심경, 사업번영부, 안전운전부, 시험합격대길부(4종류 중 선택가능)를 새겨서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 없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대형(5×7.5cm) 20,000원, 소형(3×5cm) 15,000원이며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할인하여 30,000원

달마도 순금판 액자 국내 최초 순금판 최대 크기로 오인법사의 천신 또는 상반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액자로 제작하였습니다. 표구액자(27×32cm), 달마도 순금판 크기(11×16cm)일반 판매가격 150,000원. 한정판매

달마도 순금판 열쇠고리 달마도 순금카드 (3×4cm)를 아크릴판 열쇠고리에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1개 10,000원, 3개 셋트 25,000원

구입문의상담 주문방법은 전화접수 후 전국내 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사찰 및 불자회 보시용품 각 영업회사 판촉사은품으로 최적상품 이며 다량구매시 가격할인 및 원하는 그림, 사진, 글씨, 로고도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셋트 및 액자 구매시 사은품 증정!

제조판매원: 골드타운 고객성원에 힘입어 한국순금카드사가 (주)골드타운으로 법인화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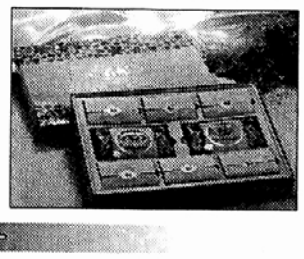
(02)926-7377, 7315 (24시간 공휴 접수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oldsale.co.kr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 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얼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